

#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에 관한 연구\*

## Analysis on Online Research Guides of University Libraries

최상희(Sanghee Choi)\*\*

### 초 록

대학에서 연구가 중요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대학도서관에서도 연구지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미 및 국내 60개 대학의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현황을 조사하여 13개의 주요 내용유형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학도서관이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을 구성하는데 고려해야 할 5개의 주요 영역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지원 가이드가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방식과 가이드를 통해 사서와 이용자가 소통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작, 제공하는 주체는 사서이며 대학도서관의 사서 역할은 향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 ABSTRACT

Research has taken priority of many activities in universities and it has eventually brought the heat on research support services of libraries to meet high expectation of university researchers. To identify the major content areas and service methods of research guides serviced through digital libraries of universities, this study investigated research guides of 60 university libraries in North America and Korea. As a result, 13 categories for research guide contents were identified and 5 crucial areas for the contents development were suggested. It also analyzed providing methods of online research guides and communicating methods between librarians and users. Librarians were identified as the prime human resource to develop and manage research guides, which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xpanding diversity of librarians' roles in the future.

키워드: 연구지원 가이드, 대학도서관, 연구지원, 디지털 참고정보 서비스, 온라인 가이드  
research guides, university libraries, research help, digital reference services,  
online guides

---

\* 본 논문은 2009 한국정보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2009년 11월 13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전임강사(shchoi@cu.ac.kr)

■ 논문접수일자: 2010년 2월 20일 ■ 최초심사일자: 2010년 2월 28일 ■ 게재확정일자: 2010년 3월 14일  
■ 정보관리학회지, 27(1): 229-248, 2010. [DOI:10.3743/KOSIM.2010.27.1.229]

## 1. 서론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인 대학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주요 대학들은 각 분야에서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이는 대학구성원에게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학도서관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학 구성원의 주요 활동인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도서관이 대학에 소속된 구성원인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가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사서도 이용자가 문의하는 참고질의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역할에서 연구 방법 및 주제선정 등 연구 활동에 대하여 기초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으로 안내하는 역할로 변화해야만 모기관 구성원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정보전문직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대학의 구성원에게 온,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인쇄 및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어 대학의 구성원, 특히 학생들에게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연구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북미 대학 및 국내 대학의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대학 구성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가이드 제공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온라인상에서 연구 활동이 어떤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 국내 대학도서관이 연구지원 가이드(Research Guide)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유형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북미와 국내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지원 가이드 개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북미대학과 한국 대학의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연구지원 가이드의 현황을 비교하여 각 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제시한다.

둘째, 대학의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지원 가이드 유형 및 제공방식,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지원 가이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지원 가이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주요 영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연구지원 서비스 가이드 제작 주체를 분석하여 사서의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사서의 역할 확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지원을 제공받는 대학의 구성원과 사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분석하여 디지털도서관에서 수용해야 할 정보서비스 제공 기술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연구를 지원하는 가이드는 연구 방법을 설명하거나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 안내하는 등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며 이하 연구지원 가이드(Research Guide)로 통칭한다.

## 2. 대학도서관과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련된 선행연구

대학도서관에서 연구지원은 20세기 중반부터 대학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확장해나가면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주요 연구자 중 하나인 버드(Budd)는 그의 저서 "The Changing Academic Library"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 대학도서관에 연구컨설팅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학도서관에서 연구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서측면에서는 소극적인 전담사서(liaison) 역할에서 능동적인 연구컨설턴트(research consultant)로 역할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였으며 특히, 학부도서관은 정보탐색자가 쉽게 협력할 수 있고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어 이용자의 연구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Budd 2005).

이와 같은 주장은 2007년 스미스, 미첼, 넘버스(Smith, Mitchell, and Numbers 2007)의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이 학생, 교수, 연구자 등 대학구성원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활용능력(Research Literacy)을 배양할 의무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정보 기술적 측면에서는 라이브러리 2.0 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채널로 이용자와 소통하며 연구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학도서관이 교육해야 할 두 가지 주요 개념과 지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과목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및 정보탐색 과정, 연구일정 계획에 대한 개념은 대학도서관이 교육해야 할 중요한 지식이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대학 구성원이 연구과정을 향상시키거나 단순화할 수 있는 연구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식을 교육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각종 인용관련 서지정보 관리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하는 지식이 될 수 있다.

대학도서관이 연구에 관련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현황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2003년에는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소속 112개 대학의 64%가 교과과정과 관련된 주제별 연구 가이드를 제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ckson and Pellack 2003). 그러나 대학도서관에서 제작된 주제별 연구가이드의 15%만이 대학도서관의 정보자원으로 목록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제별 연구가이드의 주 내용은 단순한 자료 목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연구가이드와 관련된 연구로서 2004년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대학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기존 대학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제별 연구 가이드를 결합시켰을 경우 효율적인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도출되었다(Williams, Cody, and Parnell 2004).

미국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주제별 연구가이드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이용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이드의 효용성을 파악하는 연구에서는 도서

관 이용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주제별 연구 가이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유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도서관 이용교육이 결합되어야 더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taley 2007).

### 3. 연구개요

#### 3.1 연구 방법 및 과정

대학도서관이 활발하게 연구지원 가이드를 기획, 운영하려면 이를 위한 인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이용자 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해야만 연구지원 가이드와 같은 서비스를 기획,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지원 가이드 조사 대상으로 사서 수가 많은 대학도서관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사서 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작,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적자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이 된 북미대학의 도서관은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2008년 대학도서관 평가자료 중 직원 분야의 상위 30개 대학도서관을 선택하였다. 국내 대학의 경우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index.do>)의 2008년도 통계 중 인적자원분야의 직원구성현황 중 대학도서관으로 검색한 결과에서 사서수가 많은 순으로 상위 30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대학은 별첨과 같고 이 대학들의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대학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조사한 범위는 북미대학의 경우 'Research Guides', 'Research Tools', 'Research Help' 등 'Research'가 포함되어 있는 메뉴와 'Research'가 포함된 메뉴 카테고리(category)명 아래 조직되어 있는 하위 메뉴들을 분석하였다.

국내대학의 경우 '연구지원서비스', 'Research', 'Research Help' 등 '연구'와 'Research'가 포함된 메뉴와 메뉴 카테고리 하의 하위메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메뉴 명에는 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메뉴 내용상 연구지원이 목적인 서비스인 경우 유사 서비스로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성균관대학교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제사서' 메뉴로 이 서비스는 연구, 교수, 학습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제공 내용 중 연구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학의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지원 가이드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첫째, 형태적인 측면으로 연구지원 가이드가 제공되는 방식이 분석 조사되었고, 둘째, 내용적인 측면으로 연구지원 서비스 내용의 세부 유형이 분석되었다. 셋째, 인력 측면으로 연구지원 서비스의 제작 주체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고 넷째, 정보 기술적 측면으로 연구지원 서비스에서 이용자와 사서가 연계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분석되었다.

#### 3.2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 현황

북미대학도서관의 경우 연구지원을 위한 가이드는 조사대상인 30개 대학에서 모두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독립적인 연구지원 메뉴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25개 대학으로 83%에 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뉴명은 'Research Guides', 'Research Tools', 'Research Help', 'Research Assistance' 등이 있었고 'How do I...'로 시작하는 메뉴들이 있었다.

북미대학도서관에서는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메뉴명에 이용자 구분을 명시하여 연구지원 가이드의 대상을 구분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 메뉴명에 학부생을 명시한 경우는 전체 30개 대학 중 14개 대학으로 47%에 해당하였으며 대학원생을 명시한 경우는 16개 대학으로 53%, 교수를 명시한 경우는 23개 대학으로 87%에 해당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를 구분하여 연구지원 가이드를 특화한 경우는 교수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대학원생 순으로 나타나 연구지원 가이드가 대학원생 이상 수준의 연구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특화된 메뉴에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고 하고 있는 사례도 총 5개 대학으로 약 17%에 달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그룹은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의 최상위 메뉴에서 학부생 서비스(Service for Undergraduate), 대학원생 서비스(Service for Graduate), 교수 서비스(Service for Faculty) 등으로 이용자별로 최상위 메뉴를 구분한 후 각각의 하위메뉴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에서 연구에 필요한 학술지 검색이나 인용 프로

그램 이용과 같은 공통적인 가이드 안내는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국내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연세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다섯 개 대학에서만 연구지원 서비스 메뉴에서 온라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와 전남대학교는 연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온라인상에서 직접 가이드를 제공하기보다는 학과 전담 사서 및 주제사서들이 연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었다. 메뉴명에 '연구'라는 용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성균관대학교의 주제사서 메뉴로서 단과대학별로 주제사서가 배정되어 단과대학별로 연구와 교수,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표 1> 북미 및 국내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 현황 분석에서 비교된 바와 같이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현황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소수의 대학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4.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 유형 및 내용 분석

### 4.1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 유형 분석

#### 4.1.1 연구지원 가이드의 제공 유형

- ①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표 1〉 북미 및 국내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 현황 분석

		북미	국내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		30(100%)	5(16%)
연구지원 가이드를 이용자별로 특화시킨 경우	학부생	14( 47%)	-
	대학원생	16( 53%)	-
	교수	23( 87%)	-
이용자별 특화메뉴에서 가이드를 제공한 경우		5( 17%)	-
연구지원 가이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제사서 메뉴에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경우)			1(3%)

연구지원 가이드의 제공방식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② 웹페이지 형태: 일반적인 html 문서 형태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제공하는 형태이다.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대학 모두 웹페이지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③ PDF 다운로드 형태: 연구지원 가이드의 목록은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하지만 실질적 가이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게 서비스하는 형태이다.

④ 온라인 튜토리얼 형태: 메뉴명에 튜토리얼(Tutorial)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구성방식이 단계별로 튜터링을 할 수 있는 형태이다. 플래쉬 형태로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동영상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다.

⑤ 질의응답서비스(Q&A) 형태: 독립된 연구지원 서비스 메뉴에서 일반 참고질의서비스와는 차별화하여 연구관련 질의응답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연구에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FAQ와 같이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안내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디지털

참고봉사 서비스인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 4.1.2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 유형별 현황

많은 대학이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서비스로 하고 PDF 다운로드나 온라인 튜토리얼, 질의응답서비스 형태를 혼합하여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다. 북미대학의 경우 웹페이지만으로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경우는 7개 대학으로 약 23%에 해당한다. PDF 또는 온라인 튜토리얼, Q&A 등과 웹페이지 방식을 결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학은 총 15개 대학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50%) 나타냈으며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학은 8개 대학에(27%)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현황은 〈표 2〉 북미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 형태 분석과 같다.

국내 대학의 경우는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대학 중 온라인상에서 직접적으로 연구관련 내용을 제공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 세 대학으로 모두 웹페이지 형태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다.

〈표 2〉 북미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 형태 분석

웹페이지	PDF	온라인 튜토리얼	Q&A	서비스 운영 북미대학도서관
⊙	-	⊙	-	Wisconsin, Illinois Urbana, UCLA 등 7개 대학
⊙	-	-	-	Duke, Indiana, Michigan 등 7개 대학
⊙	⊙	-	-	Columbia, UC Berkeley, Washington 등 6개 대학
⊙	⊙	⊙	-	Harvard, Yale, Northwestern 등 5개 대학
⊙	⊙	-	⊙	Johns Hopkins, Minnesota 등 2개 대학
⊙	-	-	⊙	Texas A&M, British Columbia 등 2개 대학
⊙	-	⊙	⊙	Pennsylvania 대학

질의응답 서비스 형태의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4개 대학으로서 질의응답 서비스 및 정보조사요청 형태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가이드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서에게 전송하면 연구에 필요한 주제관련 자료 및 서지정보를 제공받거나 자료이용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고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 이용교육에 대해 안내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도 ‘연구정보조사서비스’라는 특정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의 질의응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남대학교는 학술전문사서에게 연구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학술전문사서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안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연구학습지원 메뉴 하에 참고서비스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사서에게 참고질의를 게시하거나 1대1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국내대학에서 질의응답 서비스 중 일반 이용자에게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례에서만 나타났고, 나머지 대학

은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구에 관련된 가이드 내용을 개방하는 서비스가 아닌 개별화된 참고서비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 이용자가 아니거나 특정한 요구가 없는 이용자는 연구에 관련된 안내내용에 접근을 할 수 없는 폐쇄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온라인 튜토리얼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대학도서관은 이화여자대학교로 연구지원 서비스 메뉴 하에서 플래쉬 형태의 온라인 튜토리얼을 운영하고 있었다.

## 4.2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 분석

### 4.2.1 연구지원 가이드의 주요 내용 유형

북미와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13개의 유형이 분석되었다.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부 유형명과 유형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제별 가이드: 연구 주제분야를 구분하여 각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는 주제별 전문 서지를 제공

하는 경우이다. 주제별 전문서지는 단행본, 학술지, 웹정보원등 다시 주제아래서 유형별로 분류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주제별 가이드의 주제는 대학에서 연구되는 일반적인 주제 분야 외에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강의과목을 연구주제로 하여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그 과목에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제서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주제별 가이드에서는 제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제전문사서와 연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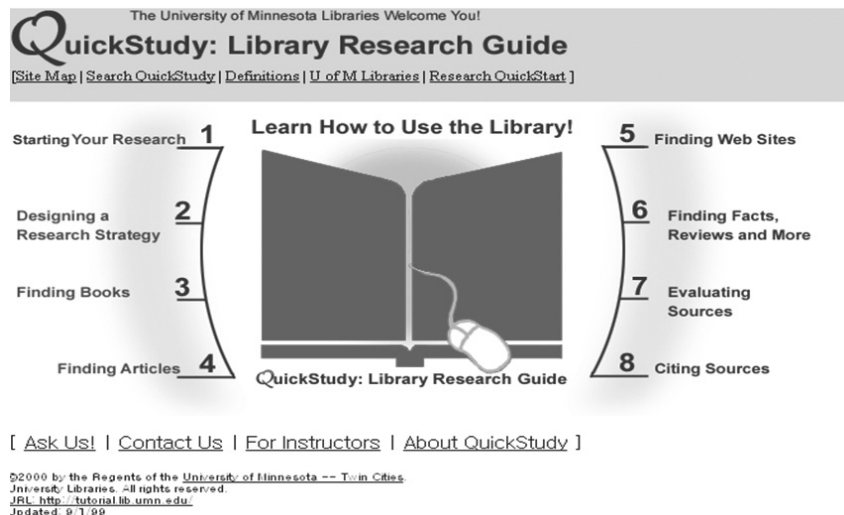
② 도서관 자료 이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도서관 이용교육의 성격이 강한 내용이다.

③ 전반적인 자료 이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웹 정보자원 등 일반적인 자료를 검색하

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정보활용교육 내용 중 자료 이용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활용 가이드 성격이 강하다.

④ 자료 유형별 이용: 단행본, 학술논문,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유형별 검색을 안내하는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에 활용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자료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도서관 일반 이용자 교육에서 안내되고 있는 자료 유형별 이용 가이드가 연계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다.

⑤ 문헌연구 방법: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과 단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가이드하기 때문에 <그림 1> 미네소타(Minnesota) 대학의 'Library Research Guide' 서비스 화면처럼 Library Research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다.



<그림 1> 미네소타(Minnesota) 대학 'Library Research Guide' 서비스 화면

⑥ 연구 단계: 연구 단계별 정보활용 및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설명하는 경우이다. 연구주제를 잡는 단계에서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단계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⑦ 학위논문 관련: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위논문 주제를 잡는 것부터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단계까지 가이드 해주는 경우이다.

⑧ 강의연계: 주제별 연구지원 가이드가 특정 과목에 특화되어 개발된 경우이다. 특정 과목의 주제를 학습, 연구 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활용할 수 있는 단행본, 학술지, 학술데이터베이스, 통계 등 주요 정보원에 대한 서지정보와 이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⑨ 학술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학술적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 북 리뷰를 하는 방법 등 자료를 활용하여 학술적으로 글을 쓰는 기본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는 성격이다.

⑩ 인용 작성: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경우이다. 각 대학에서 사용하는 MLA, APA, Chicago 등 주요 인용양식 작성법을 소개하는 사례가 많았다.

⑪ 인용 프로그램: 인용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EndNote, RefWorks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이드 하는 경우이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용정보관리프로그램 교육 일정을 제공하고 신청 받는 사례도 있었다.

⑫ 연구윤리: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인지하고 있어야 할 연구 윤리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연구의 진실성과 표절 등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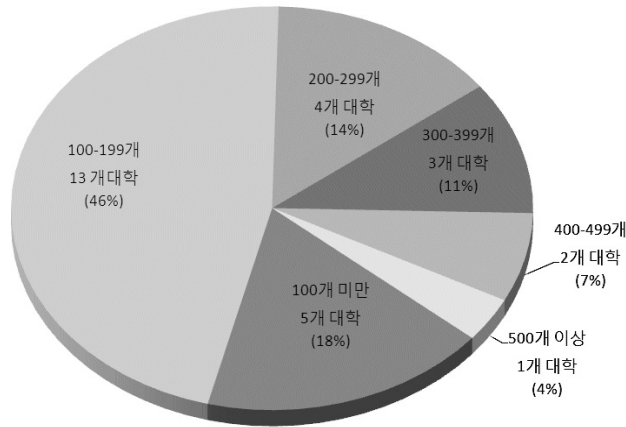
여 설명하고 있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⑬ 연구과제 지원: 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 대하여 가이드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대학에서 주요 국가기관 등 외부기관에 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지해야할 주요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북미주요 연구과제 발주 기관인 미국과학재단(NSF)에 대한 정보와 과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단계 등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었다.

#### 4.2.2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 유형별 제공 현황

북미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주제별 가이드와 인용 작성 및 인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다. 세 유형 모두 조사대상 대학 중 28개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어 약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북미대학도서관에 제공하고 있는 주제별 가이드의 양인데 28개 대학이 제공하는 주제 가이드는 총 5,590개이며 평균 약 200개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었다. 가장 많은 주제별 가이드를 제공하는 대학은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대학으로 총 520개(2009년 10월 기준)에 해당하는 주제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학이 지속적으로 주제별 가이드를 생산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수치는 향후 점점 더 향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제별 가이드를 제공하는 세부적인 현황은 <그림 2> 북미대학의 주제별 가이드 제공 현황과 같다.



〈그림 2〉 북미대학의 주제별 가이드 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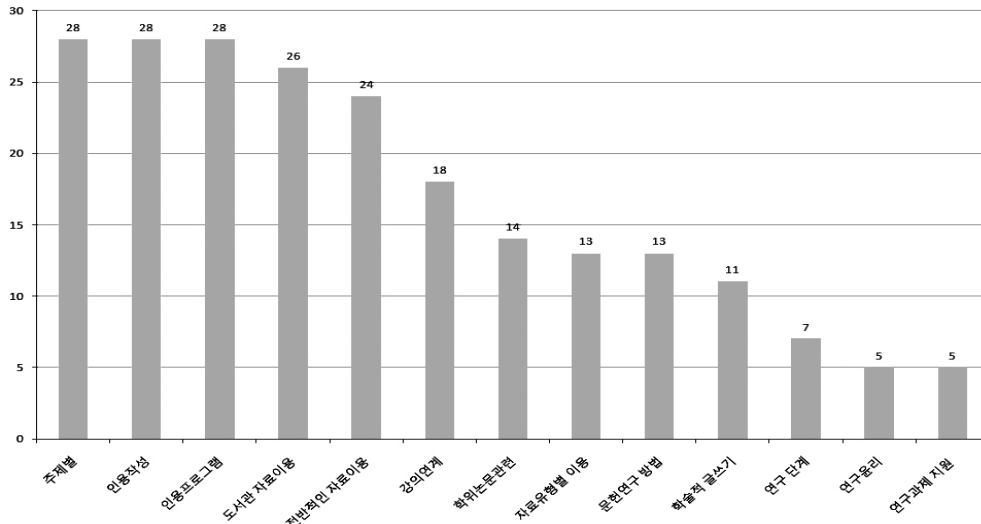
네 번째로 많이 포함되고 있는 내용은 도서관 자료 이용에 관련된 것으로 26개(86%) 대학의 가이드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인 자료 이용은 24개로 약 80%의 대학에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강의와 연계하여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대학도 18개 대학(60%)로 분석되었으며, 대학 학위논문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경우는 14개 대학에서 조사되어 약 47%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과 연구 초보자를 위한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설명은 11개 대학(37%)에서 연구지원 가이드에 결합하여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절과 연구 진실성 등을 안내하는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드와 외부기관에 연구과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이나 일정을 제공하는 연구과제 지원과 관련된 가이드는 각각 5개 대학(17%)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유형별 세부적인 제공현황은 〈그림 3〉 북미대학 연구지원 가이드의 내용유형 현황

과 같다.

국내 경우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 인하대학교 도서관 등 3개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안내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와 전남대학교는 연구지원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받는 서비스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 분석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주제별 가이드 경우 분석대상이 된 3개 대학 모두 주제별 가이드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는 15개의 주제 분야, 이화여자대학교는 43개의 주제 분야, 인하대학교는 13개의 주제 분야에서 주제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인하대학교 도서관 사례인데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 대학교가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등 복수 주제 영역에 해당하는 주제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학 영역에서만 주제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주제사서 메뉴에서 주제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



〈그림 3〉 북미대학 연구지원 가이드의 내용유형 제공 현황

는데 주제사서가 단과대학과 주요 학부별로 (예: 문과대학, 생활과학부, 공과대학, 사회과학부 등) 전담하여 주제별 학습, 연구지원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사서 메뉴에서는 학술정보원을 소개하고 학술정보와 tip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학술질의와 학위논문정보조사 요청을 받고 있었다.

인용작성에 대한 내용을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 대학교로 Chicago, MLA, APA, 등 일반적 참고문헌 작성법을 소개하고 있었고 연세대학교의 경우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참고문헌작성법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인용프로그램인 EndNote와 RefWorks에 대한 사용 설명은 연세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도서관 자료 이용과 전반적인 자료 이용에 대한 내용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연구지원 서비스에서 온라인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각각 'Research' 메뉴와 '연구학습지원' 메뉴 하에서 강의자료 및 지정도서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사서가 특정 강의에 대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니고 강사가 도서관 자료를 강의 자료로 지정하거나 강사 개인 자료를 도서관 시스템에 등록하여 강의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서관이 강의에 연계되어 연구를 지원하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주체가 되어 도서를 지정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 위 내용분석 결과 도출된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 유형인 강의연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위논문에 관련하여서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위논문 참고문헌 작성법 안내를 하고 있어 일반적인 인용 작성 안내와 결합하여 학위논문 에 특화된 참고문헌 작성법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 대학교 도서관 모두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

고 있었다. 그러나 학위논문의 주제를 잡고 연구하는 단계 등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 못했다. 이밖에도 이화여자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튜터리얼을 통해 문헌연구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위와 같이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자료유형별 이용, 학술적 글쓰기, 연구 단계, 연구윤리, 연구과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다.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직접적으로 연구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도서관의 각 내용유형별 제공현황은 <표 3> 국내 대학 연구지원 가이드의 내용유형 제공 현황과 같다.

### 4.3 연구 가이드 제작 주체 및 이용자와 소통방식

대학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연구

지원 가이드 제작 및 운영은 북미 및 국내 대학 모두 사서 및 사서로 구성된 팀이 주관하고 있었다. 연구지원 가이드에 명시된 제작 및 운영 주체는 참고사서로, 특히 주제별 가이드 경우는 대부분 주제전문 사서가 전담하고 있었다. 북미의 일부 대학에서는(3개 대학) 특정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와 비사서 직원이 참여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작한 주체는 대부분 사서였다. 이와같이 사서가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의 책임을 지는 저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릴랜드(Maryland) 대학에서는 연구지원 가이드를 검색할 경우 사서 명으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었다. 즉, 일반 정보 자원을 저자로 검색하는 것과 유사하게 도서관에서 제작한 다양한 연구지원 가이드를 사서 명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연구지원 가이드 제작 및 운영에서 사서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 가이드에서는 온라인으로 사서와 이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표 3> 국내 대학 연구지원 가이드의 내용유형 제공 현황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주제별	⊙	⊙	⊙
인용 작성	⊙	⊙	-
인용프로그램	⊙	-	⊙
도서관 자료이용	⊙	⊙	-
전반적인 자료이용	⊙	⊙	-
강의연계	-	-	-
학위논문관련	⊙	⊙	-
자료유형별 이용	-	-	-
문헌연구 방법	-	⊙	-
학술적 글쓰기	-	-	-
연구 단계	-	-	-
연구윤리	-	-	-
연구과제지원	-	-	-

지원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에서 사서가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를 통해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은 다섯 가지로 이메일, 전화, 채팅, 문자, 일대일 컨설팅 온라인신청 등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사서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사서에게 이메일로 질의를 하거나 전화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유형이다. 채팅은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 내에 사서의 채팅 명을 제공하여 MSN, AOL과 같은 특정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서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며 사서가 온라인상에 연락가능함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채팅을 할 수 있는 업무 시간을 제공하는 사례도 많았다. 문자는 사서에게 문자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이며 일대일 컨설팅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상에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서에게 일대일로 컨설팅을 신청하는 유형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컨설팅 시간을 설정하고 컨설팅을 받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여 신청하는 메뉴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일부 대학은 사서 명을 검색하여 지정한 후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북미대학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사

서가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례는 이메일과 전화번호 제공이 가장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인 30개 대학에서 모두 이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순으로 대학도서관이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사서가 이용자와 소통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방식은 채팅으로서 총 14개 대학에서 사서와 이용자를 위한 채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대일 컨설팅은 11개 대학에서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며 문자는 가장 적은 대학인 2개 대학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북미대학도서관은 이용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어 대부분 대학도서관이 2-3가지의 소통방식을 혼합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이메일과 전화 등 기본적인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는 대학이 11개로 가장 많았으며 채팅과 일대일 컨설팅 온라인 신청을 포함하여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학이 10개, 문자서비스까지 포함하여 총 네 가지 방식을 지원하는 대학도 9개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사서와 이용자의 소통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 대학이 연구지원 가이드를 통해 이용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인 현황은 <표 4> 북미대학도서관의 사서와 이용자 간 소통 방식 분석과 같다.

<표 4> 북미대학도서관의 사서와 이용자 간 소통 방식 분석

이메일	전화	채팅(chat)	문자	일대일 컨설팅 온라인 신청	서비스 운영 대학도서관
○	○				Yale, Pittsburgh, Minnesota 등 11개 대학
○	○	○		○	Columbia, Pennsylvania, Indiana 등 7개 대학
○	○	○			Princeton, Texas A&M, Wisconsin 등 7개 대학
○	○			○	Harvard, UC Berkeley, Duke 등 3개 대학
○	○	○	○		Johns Hopkins 대학
○	○		○	○	Northwestern 대학

국내 대학의 경우 인하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외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네 대학 모두 전화와 이메일로 사서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었다. 인하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Research Help'에서는 사서와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네 대학도서관 모두 일대일 컨설팅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지원 가이드 서비스에서 문자나 채팅 등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 국내 사례는 없었다.

#### 4.5 기타 부가적 사례

기타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례로 도서관 검색엔진과 연동되어 연구지원 가이드가 검색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북미 5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학의 사서가 제작한 연구지원 가이드가 대학의 장서와 결합되어 장서의 일부분으로 대학도서관 목록에서 검색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정보 수집과 제공을 하는 사서가 정보의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학도서관에서 사서가 산출해내는 연구지원 가이드가 장서개발에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연구에 관련된 컨설팅을 우수한 동료학생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연계해주는 사례가 있었다. 즉, 같은 수준에서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도서관 외부에 있는 인력자원, 우수한 동료 학생을 연구지원 요청자와 연계해

주는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이 소속된 대학의 학생들 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5. 연구지원 가이드의 주요 영역 분석

북미와 국내 대학의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에서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제공해야하는 주요 영역을 '연구주제', '연구방법', '정보이용', '연구결과저작', '연구 활동' 등 총 5개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연구주제'로 대학도서관은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각 주제별로 주요 정보에 대한 서지를 제공해야한다. 대학이나 학부 단위처럼 대주제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이나 교수들이 연구하는 세부적인 학문 주제 수준에서 주제서지 개발이 필요하며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대학도서관에서는 이미 주제별 연구가이드 형태로 다양한 주제별 서지가 개발되어 단일대학에서 500건이 넘는 연구 주제별 서지를 제공하고 있고 사서가 생산한 주제 서지가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디지털 장서로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대학에서는 주제 서지가 기반이 된 주제별 연구가이드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지만 주제전문사서가 대학도서관에 점차 도입되면서 향후 대학도서관이 주목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연구방법'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안내해야하는 연구방법은 도

서관 자료를 포함한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조사방법이다. 즉,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영역이며 각 연구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활동과 활용해야 할 정보원에 대한 설명 등을 안내해야 하는 영역이다. 연구를 하기위해 어떤 정보원을 선택하여 습득한 후 어떻게 리뷰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 주제를 잡는 단계부터 정보를 검색, 평가, 인용하는 단계별로 안내를 하게 될 경우는 다른 영역인 '정보이용'과 '연구결과저작'에서 제공되는 내용과 연계될 수 있다. 이 영역은 연구 활동 경험이 적은 학생이나 초보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로 연구지원 가이드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세 번째 영역은 '정보이용' 영역으로 도서관 이용자 교육내용과 전반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단행본이나 학술지, 학술데이터베이스, 통계, 특허 등 연구에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특성에 따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를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특화시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자는 요구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연구지원 메뉴에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더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영역은 '연구결과저작'이다.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연구자나 과목 과제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용자에게 모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술적 글쓰기의 필수 요소인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하며 요즘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관리 도구인 EndNote나 RefWorks 등과 같은 인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 인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능력을 이용자가 갖추게 되면 연구에 활용하거나 활용할 주요 정보의 서지사항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프로그램 사용안내는 연구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연구내용을 논문이나 보고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판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표절이나 자기 중복 등은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저작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 영역은 '연구활동'에 관련된 영역으로 연구를 하는 환경에 맞춰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영역은 연구활동의 성격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영역이다.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강의와 연계하여 주제 서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구 과제에 필요한 사항이나 필독도서, 신간 등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 등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연구지원 가이드의 적합한 사례로는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일정 계산기를 들 수 있다. 미네소타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위논문 일정 계산기에 논문이 시작될 날짜와 완성되어야 할 날짜를 입력하면 입력된 기간을 고려하여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준비하는 등 학위논문 준비 단계를 설정해주고 각 단계별로 마감 날짜를 설정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정을 설정해주는 것 외에도 각 준비 단계별 수행해야 할 활동들을 안내해주고 있어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이 지원하는 주요 이용자인 대학원생과 교수들은 주요 외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 영역에서 이러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과학재단이나 연구재단과 같이 대학 구성원에게 연구 과제를 발주하는 주요 기관이 요구하는 연구과제 신청서 작성 양식 내지는 작성 요령, 사례 등을 수집하여 이 영역에서 제공한다면 연구 과제를 신청하는 이용자에게 대학도서관이 매우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대학도서관이 효율적인 연구지원 서비스를 하려면 위 다섯 개의 영역에 연구 활동의 개념을 특화시켜 독립적인 서비스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첫 번째 영역인 '연구주제' 영역과 다섯 번째 '연구활동' 영역은 연구를 하는 이용자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는 영역으로 연구지원 가이드의 다양성이 증시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는 연구지원 가이드의 종류와 범위를 점차 확장시켜야 하는 영역이다. 즉, '연구주제' 영역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주제서지는 대학의 연구자를 위한 최소한의 영역에서 시작하여 점차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연구활동' 영역에서는 최근 대학구성

원의 연구 활동을 파악하여 최근 개설되는 강의나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야만 효율적인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을 할 수 있다. 반면 '연구방법', '정보이용' 및 '연구결과저작' 영역은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워주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영역이므로 이용자를 교육하는 측면에서 가이드가 제공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지원 가이드가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 보다는 이용자가 연구지원 가이드를 통해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연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준에 따라 제공하거나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 개 영역 중 이미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보이용'이다. 이미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정보이용' 영역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정보자원을 활용하는 정보를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연구를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내용보다는 좀더 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구성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안내를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즉,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안내 서비스를 도서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안내 서비스를 하게 되면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이용자 정보활용 활동을 활발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로 특화된 가이드에서 일반적인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더라도 연구지원 가이드와 일반 가이드를 차별화하여 제공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이용자에게는 도서관에서 제

공하는 가이드에 더 많은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6. 결 론

대학도서관이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지원 가이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요소를 제시하고자 북미대학도서관 30개와 국내 대학도서관 30개의 디지털 도서관 홈페이지를 분석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분석되었다.

첫째, 북미대학도서관에서는 연구지원 가이드를 다양한 내용으로 다각적 방식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례가 극히 소수였으며 제공되는 내용과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용자와 소통하는 방식도 다양한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제별 가이드를 제공하는 양적 측면에서는 북미대학도서관과 국내 대학도서관 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미대학도서관 사례에서는 이용자별로 특화하여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북미대학도서관에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현황은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국내 대학도서관은 이제 연구지원 가이드를 도입하는 시작단계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대학도서관은 현재 북미 대학도서관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연구지원 가이드의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개발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의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

공하고 있는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방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웹페이지를 기본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PDF 다운로드나 온라인 튜토리얼, 질의응답서비스 방식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지원은 일대일로 질의를 문의하고 상담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연구지원 가이드와 결합하여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도 고려해야하며 연구가이드에서 더 심화된 연구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연구지원 가이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제별, 인용 작성, 인용프로그램, 도서관 자료 이용, 전반적인 자료이용, 강의연계, 학위논문 관련, 자료유형별 이용, 문헌연구 방법, 학술적 글쓰기, 연구 단계, 연구윤리, 연구과제지원 등 13개의 내용 유형이 분석되었다. 분석된 내용 유형을 기반으로 연구지원 가이드로 구성되어야 하는 영역을 도출한 결과 '연구주제', '연구방법', '정보이용', '연구결과저작', 및 '연구활동'이 주요영역으로 규정되었다. 이 중 주제서지 개발이 핵심이 되는 영역은 '연구주제' 영역이며 연구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안내와 교육을 수행해야하는 영역은 '연구방법'과 '정보이용' 영역이다. 연구결과를 출판하거나 보고서로 제출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영역은 '연구결과 저작' 영역이며, 연구지원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해야하는 영역은 '연구활동' 영역이다.

넷째, 대학도서관이 제공하고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작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주체는 사서, 특히 주제전문 사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지원 가이드를 제작, 운영하는 주체가 주제전문 사서인 것을 감안하면 북미대학도서관은 주제전문 사서의 역할이 정착되고 확장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지원 가이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환경에서는 주제전문 사서가 실질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시작단계이므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제전문 사서나 참고사서가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작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서가 타인이 생산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에서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서가 개발한 연구지원 가이드는 웹페이지 형태나 디지털 파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학도서관이 자체 디지털 장서로 개발하여 기존 장서와 결합하는 시도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다. 북미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사서가 제작한 연구지원 가이드를 목록화하여 기존 장서와 결합하여 검색되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다섯째, 연구지원을 제공받는 대학의 구성원과 사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분석한 결과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소통방식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미대학의 경우 채팅, 문자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소통방식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은 연구활동을 하는 다양한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주제', '연구방법', '정보이용', '연구결과저작' 및 '연구활동' 영역으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저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기본적인 연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방법'

'정보이용' 및 '연구결과저작' 영역에서 연구지원 가이드를 통해 이용자가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와 '연구활동' 영역에서 다양하게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연구지원 가이드를 이용해 현재 수행해야만 하는 특정한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구지원 가이드를 생산, 제공하는 주체는 사서이다. 연구지원 가이드 제공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사서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데 주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사서는 대학도서관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가이드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가이드를 저작하는 창작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사서가 저작한 연구지원 가이드는 대학에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장서부분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정 대학의 사서 또는 사서 팀이 저작한 연구지원 가이드는 그 대학만의 특화된 디지털 장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사서가 직접 디지털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이용자의 요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에 필요한 사서의 역량, 수 등 연관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연구지원 가이드를 제작하는 사서의 역량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인 지원은 아웃소싱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이 되었던 북미대학도서관 30개 대학 중 14개 대학(47%)이 연구지원 가이드

드 서비스를 위해 도서관 가이드 제작 및 운영, 관리 전문 업체인 스프링셰어(Springshare)사의 상용 서비스인 립가이드(LibGuides)를 이용하고 있었다. 도서관 가이드 제작 틀이자 관리, 운영 서비스인 립가이드는 가입된 회원 도서관 사서들이 제공되는 저작 툴을 이용하여 손쉽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외부 정보원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대학도서관별로 제작된 가이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또한 타 대학 사서들의 제작한 가이드 내용도 참조하기 쉽도록 지원하고 있어 사서들이 제작한 정보 공유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사서의 인력이 부족한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지원을 제공받는 형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도서관 시스템 개발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협력 체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index.do>〉.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2008. ARL Statistics 2007-08.  
 〈<http://http://www.arl.org/stats/annualsurveys/arlstats/arlstats08.shtml>〉.  
 Brazzeal, Bradley. 2006. "Research guide as library instruction tools" *Reference Services Review*, 34(3): 358-367.  
 Budd, John M. 2005. *The changing academic library: Operations, Culture, Environments*. Chicago: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Jackson, Rebecca and Lorraine J. Pellack, 2004. "Internet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3(4): 327-335.  
 Smith, Susan Sharpless, Erick Mitchell, and Caroline Numbers. 2007. "Building library 2.0 into information literacy: A Case Study." in *Library 2.0: Initiative in academic libraries*. Edited by Laura B. Cohen. Chicago: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114-132.  
 Sprague, Kalee and Roy Lechich. 2007. "Yale: Taking the library to users in the online university environment." in *Library 2.0: Initiative in Academic Libraries*. Edited by Laura B. Cohen. Chicago: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0-44.  
 Staley, Shannon M. 2007. "Academic subject guides: A case study of use at San Jose State Universit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68(2): 119-139.  
 Williams, Lisa. M, Sue Ann Cody, and Jerry Parnell. 2004. "Prospecting for new collaborations: Mining syllabi for library service opportuniti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0(4): 270-275.

## 〈 별 첨 〉

### 1) 북미대학도서관 직원분야 상위 30개 대학

Brigham Young,	Johns Hopkins,	Pennsylvania State,
British Columbia,	Maryland,	Pittsburgh,
UC Berkeley,	Michigan,	Princeton,
UCLA,	Minnesota,	Southern California,
Columbia,	New York,	Texas,
Cornell,	North Carolina,	Texas A&M,
Duke,	North Carolina State,	Toronto,
Harvard,	Northwestern,	Washington,
Illinois Urbana,	Ohio State,	Wisconsin,
Indiana,	Pennsylvania,	Yale

### 2) 국내대학도서관 사서 직원수 상위 30개 대학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서강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인하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한양대학교 안산학술정보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도서관	동아대학교 도서관	조선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동의대학교 도서관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강원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부경대학교 도서관	공주대학교 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도서관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